

새싹편지 4월호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새싹편지 2014년 4월호

지금 유아교육과에서는!

우송대 환경캠페인



14월 5일에 8:30~12:30까지 약 4시간 동안 우송대학교 서 캠퍼스 일대에서 환경캠페인이 진행되었다. 학교와 그 주변 일대를 청소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송대학교를 가꾸기 위해 보건복지대학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유아교육과도 학생회장 박지원 선배님과 1학년 5명이 함께 환경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더 효율적인 환경캠페인활동을 위해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4개 조로 나뉘어 각 구역을 정하고 이동했으며,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속한 조에서는 본교 서문에서 시작하여 학교를 가로질러 자양동 주민센터 정문 원룸 주변까지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길까지 깨끗하게 청소했다. 학생들



은 청결해진 학교를 다시 한 번 둘러보고, 제공된 점심을 먹고 해산했다.

환경캠페인 활동에 참여한 유아교육과 1학년 황세희 학생은 학교 내에 쓰레기통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도 학교 주변 원룸 곳곳에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버리는 쓰레기에 인해 얼마나 큰 피해를 보는지 학생들이 깨달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환경캠페인 활동을 통해 더 청결한 우송대학교가 되었으며,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갖게 되었다.

갑천 걷기, 마라톤 대회

제11회 '3대 하천 마라톤 대회'가 4월 20일에 8:00~3:00까지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진행되었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전국 마라톤 동호인과 대전 시민들에게 대전 교육에 대한 지역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기업·단체·개인 등의 자발적 참여와 후원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된 마라톤이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가하였고 대전의 여러 대학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우송대학교 학생들도 셔틀버스를 타고 대회장에 도착했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9시에 5km 구간에서 출발하여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의 통제하에 안전하게 도로로 뛰고, 갑천 주변의 경치를 감상하기도 하며 학업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좋은 시간을 보냈다. 완주한 사람들에게는 메달을, 30등 안에 들면 소정의 상금과 쌀도 증정하였다. 유아교육과 심영선 학생은 도보순례와 다르게 마라톤은 처음으로 체험하는 거라서 기대가 있었는데 자연과 어우러진 갑천을 감상하며 걸으니 더욱 상쾌하였고 완주를 했다는 생각에 나 자신이 대견했다며 마라톤에 대한 소감을 알렸다.

우리들의 이야기

교육실습 후 소감

4학년 서영은

안녕하세요. 졸업이 눈앞으로 다가온 4학년 서영은입니다. 저는 중앙유치원 만 3세 민들레 반으로 20일간 실습을 나갔습니다. 사전 실습 때, 만 3세 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듣고 수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민들레 유아들은 수업에 대한 흥미도 높고, 집중도 잘했기 때문에 '유아들이 수업에 집중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은 덜었습니다. 수업은 부분수업 하나, 연계수업 하나, 올데이 하루로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한 수업마다 좀 더 나은 수업을 위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관에서는 실습생이 하고 싶어 하는 수업의 유형과 내용으로 수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배려 해주셨기 때문에 수업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전에는 담임선생님과 협의의 통해 좀 더 나은 수업을 계획 하여 진행할 수 있었고, 수업 후에는 피드백을 통해 저의 부족함을 알고 다음 수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도 해주셨습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 저는 저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교육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새 노래 '꽃샘 바람' 을 수업하고 있는 모습이다.



동화 '빼약 우리 엄마세요' 를 수업하고 있는 모습이다.

4학년 김민아



4월 한 달 동안 대전 자양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으로 실습을 다녀왔다. 실습을 가기 전 보육실습과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걱정되기도 했다. 나는 만 3세 반, 7명의 유아를 맡았다. 학교 수업시간에 배웠던 대로 계획안을 쓰고 수업을 했는데 내가 생각한 교사의 발문에 대한 유아의 반응이 잘 나오지 않아 당황스러웠다. 생각하지 못한 대답이 나왔던 경우도 있었지만, 수업을 진행하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등 융통성이 생겨서 뿌듯하기도 했다.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해보면서 아쉬운 점도 많았다. 하지만 교육실습을 통해 교사로서 나의 장단점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면서 목소리 크기, 말의 속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고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다. 담임선생님과 수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도 알게 되었고 수업에 대한 팁도 들을 수 있었다. 좋은 선생님들과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앞으로 현장에 나가 교사로서 생활할 때, 실습 때 배운 것을 잘 적용하여 성장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혜나눔 프로젝트

가베와 은물의 공통점과 차이점



갈수록 아이들을 둔 부모들의 교육열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들은 유아의 창의성과 사회성, 지능 발달 등의 다방면 학습에 전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높은 교육적 효과를 지닌 학습 교구로써 ‘가베’와 ‘은물’이 대두되었고, 이것을 사용한 교육이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베와 은물에 관련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 초, 교육 교구들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인 ‘프뢰벨사’에서 처음 가베교육이 국내에 유입되었다. 이후, 이 회사에서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가베교구를 부르는 고유 이름으로 ‘은물’이라는 1명칭을 사용하여 특허를 낸 후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가베’와 ‘은물’은 각기 다른 재질과 크기를 가진 교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교구를 부르는 두 가지의 명칭>이라 알려지게 되었다.

은물의 시초인 가베는 최초의 유치원 창시자인 독일의

프뢰벨에 의해 만들어진 학습 교구로써 자발성과 창조성을 강조한 프뢰벨의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 가베교육은 독일에서부터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일본으로 전해지게 되었고, 이때 교구의 일부가 쇠나 플라스틱 등의 재료로 변환된 것이 많다. 가베와 은물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뜻으로 유아를 위한 학습 교구를 목적으로 고안되었다는 것에서 공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베와 은물은 재질, 구성과 크기, 개수, 색 등 여러 가지로 조금씩 다른 점을 보인다. 이는 은물이 가베에서 후에 미국 실용주의 교육과 접목되어 변형된 것이기 때문이다.

‘가베’와 ‘은물’은 뜻과 목적은 같지만, 명확히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은물은 가베에서 변형된 것이므로 가베가 좀 더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우리는 유아들이 학습하는 교구의 명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유아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악기

트라이앵글, 탬버린과 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기 이외에 흔히 접하지 못했던 유아들의 색다른 악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켓은 톱니바퀴의 원리로 연주되는 효과 악기의 일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악기입니다. 손잡이를 돌리면 톱니바퀴가 돌면서 얇은 나무판을 스쳐 나는 소리와 독특한 연주방법으로 유아들에게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들이 평소 가지고 노는 장난감과 비슷하여 교구라는 부담없이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으며 손잡이를 돌려 연주하게

되면서 유아 두뇌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윈드차임은 말렛이라는 막대로 바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훑는 느낌으로 연주를 합니다. 여러 개의 공명 바들이 맑고 깨끗한 소리와 울림을 주어 흔히 맑은 구슬들이 부딪치는 듯한 천상의 소리를 내는 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특한 모양과 아름다운 음색은 유아들에게 다소 생소한 악기로 시각적, 청각적으로 흥미를 유발합니다. 또한, 집중력이 부족한 유아들에게 지속적으로 들려주며 명상을 유도하면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송유치원 소식

봄 소풍



4월에 우송유치원에서는 봄을 주제로 봄철 자연의 변화를 알아보고 꽃 심기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4월 3일에는 만 4세 유아들이 맨드라미, 해바라기, 봉선화 중 원하는 씨앗을 선택하여 심어 보았다. 이 활동을 하기 전 사전 활동으로 다양한 종류의 씨앗을 관찰하고 재활용 컵을 모아서 직접 화분을 꾸며보는 활동을 하였다. 4일에는 만 3세, 5세 유아들이 씨앗 심기를 하였는데 만 5세 유아들은 스스로 두 명씩 짝을 지어 한 화분에 같이 심었고, 10일에는 꽃 도 매시장에 가서 다양한 꽃을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17일에는 만 3세 유아들이 처음으로 학교를 벗어나 우암 사적 공원으로 산책하러 나가서 유치원에서 사진으로만 보았던 다양한 꽃을 실제로 관찰하고 게임 활동을 하였다. 23일에는 만 3, 4, 5세가 다 함께 동춘당으로 소풍을 갔다. 반별로 산책을 하고 음악 활동 시간에 배웠던 노래를 부르며 율동도 해보았으며 유치원으로 돌아오기 전에 보물찾기를 하여 준비한 선물을 유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외에도 1주일에 1~2번씩 캠퍼스를 산책하며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과정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만드는 사람들

담당교수 : 성원경 교수님

학 생 : 김지윤 김유리 김예슬

박지원 박명옥 손혜원

강현아 김수민

김지송 김지예

